

유사친족호칭의 사용실태에 대한 한일대조연구*

홍민표**

< Abstract >

A Contrastive Study on the Use of Fictive Kin Terms in Korean and Japanese

This paper examines results of researches on how middle-aged men and women at their 50s refer to people who are not actually related to them, in Korea and Japan, from a sociolinguistic point of view. The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When people call a worker at a restaurant/pub or call a stranger on the street, the word "*jeogjyo* (Here!)" or "*jeogjyo* (Hey!)" was mainly used in Korea, whereas the word "*sumimasen* (Excuse me!)" was used most often in Japan.

(2) When people directly call or mention a friend's grandparents, parents, and siblings (older/younger brother, older/younger sister), in both Korea and Japan, people agree that the same terms used to their grandparents, parents, and siblings are most frequently applied to them.

(3) The term such as */Name+san/* is used in Japan for a senior or junior spouse, whereas in Korea the equivalent is used only for a junior spouse.

(4) In Korean, male speakers tend to refer to their senior and junior colleagues' spouses as relative terms such as "*Hyeongsunim* (older sister-in-law)" and "*Jessusi* (younger sister-in-law)" respectively, whereas in Japanese, male speakers use "*okusan*" or "*okusama*", and female speakers used "*dannasama*" or "*gosyujiri*".

Field : Sociolinguistics

Keywords : Contrastive researches, Fictive Kin terms, Korean, Japanese

1. 연구의 목적

한일 양 언어에는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친족호칭으로 부르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노인을 ‘할아버지’ ‘할머니’(일본어로는 「おじいさん」 「おばあさん」)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년의 남성이나 여성을 ‘아저씨’ ‘아주머니’(일본어로는 「おじさん」 「おばさん」)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자기의 부모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버님’ ‘어머님’ (일본어로는 「おとうさん」 「おかあさん」)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가 만약 친족이라면 자기에게 무엇에 해당할까를 고려하여 그 관계에 어울리는 친족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유사(類似) 친족호칭’¹⁾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법에 있어서는 한국어와

* 본 연구는 2017년도 계명대학교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과제번호 20170787).

** 계명대학교 교수, 사회언어학

1) 실제로 친족이나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친족명칭으로 부르는 호칭을 인류학에서는 친족호칭의 허구적 용법(fictive use)(鈴木, 1973), 박정운(2005)에서는 ‘통칭적 호칭’, 김희숙(2005)에서는 ‘대용친족호칭어’, 홍민표(2016)에서는 ‘유사(類似)친족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본고에서도 홍민표(2016)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일본어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고교나 대학에서 후배가 선배를 부를 때도 ‘형’이나 ‘언니’라는 친족호칭으로 많이 부르는데 비해서 일본에서는 실제로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을 「お兄さん」이나 「お姉さん」으로 부르는 경우는 음식점이나 주점의 종업원 호칭 이외에는 거의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친한 후배의 부인을 ‘제수씨’라 부르기도 하고 선배 부인을 ‘형수님’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친족명칭 자체가 없고 실제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실제로 친족이 아닌 사람을 친족호칭으로 부르는 유사친족호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대화를 듣고 실제로 친족관계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2차 집단 내에서 혈연관계로 구성된 1차 집단에서 사용되던 호칭어가 그대로 쓰인다는 것은 타 언어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다. 최소한 자주 사용되는 호칭어를 기준으로 언급한다면 한국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친족집단으로 볼 수 있다(왕한석 외, 2005).

이와 같이 한국에서 사용되는 ‘유사친족호칭’은 한국인의 대인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한국인도 일본인의 ‘uchi’ ‘soto’처럼 ‘우리’와 ‘남’을 구별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 구별 의식은 일본인보다 철저하다. 예를 들면, ‘우리’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처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남’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호감을 가진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집단으로 끌어들여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친족 호칭이다. 즉 친한 사람, 또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친족 호칭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우리’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친족(疑似親族)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 대인관계의 최종 목표로 볼 수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양 언어에서 사용되는 유사친족호칭의 사용 실태를 계량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대조,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단 호칭이란 남녀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양국의 수도권, 즉 한국은 서울지역, 일본은 도쿄지역으로 한정하고 연령층은 사회경험이나 대인관계가 폭넓은 50세 전후의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조 고찰하고자 한다.

2. 조사개요

조사는 한일 양국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중, 유의선택방식(convenience sampling)으로 선정한 400명(한국인 남성 95명, 여성 105명, 일본인 남성 92명, 여성 108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한일 양국에서 지인의 협조를 얻어 동시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한국인 남성이 47.2세, 여성이 50.0세이며, 일본인 남성은 52.0세, 여성은 51.0세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한일 양국 마찬가지로 남성은 회사원과 자영업이 대부분이며, 여성은 회사원, 전업주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조사방법

조사는 <표1>과 같은 질문지조사표(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평소에 부르는 호칭을 오른쪽 <보기>에

2) 혈연관계가 아닌 상대를 가족처럼 대하는 관계성을 요코야마(横山, 2012)에서는 「疑似家族」으로 부르고, 「疑似家族」에게 사용하는 호칭을 「擬似的親族呼称」으로 부르고 있다.

서 끝라 번호를 적도록 의뢰하였다.

〈표1〉 조사용지(예시)

호칭대상(종업원)	번호	<보기>		
종업원이 20대 남성인 경우		①여기요!	②저기요!	③잠깐만요!
종업원이 20대 여성인 경우		④아주머니	⑤아줌마	⑥아저씨
종업원이 30대 남성인 경우		⑦사장님	⑧학생	⑨형
종업원이 30대 여성인 경우		⑩삼촌	⑪언니	⑫이모
종업원이 60대 남성인 경우		⑬아버님	⑭어머님	
종업원이 60대 여성인 경우		⑮기타(직접 적어주세요) →		

4. 조사결과 및 고찰

4.1 직접호칭³⁾

4.1.1 음식점이나 주점의 종업원 호칭

4.1.1.1 한국인의 경우

〈표2〉 음식점이나 주점의 종업원에 대한 직접호칭(한국인의 경우)

호칭대상 (종업원)		20대		30대		60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
여기요	남성	54.1	28.8	32.8	27.9	6.6	5.0
	여성	54.8	42.5	51.4	44.4	21.1	20.8
저기요	남성	18.0	23.7	18.0	16.4	6.6	3.3
	여성	17.8	16.4	14.3	9.7	5.6	5.6
학생	남성	16.4	23.7	-	-	-	-
	여성	21.9	17.8	-	-	-	-
잠깐만요	남성	4.9	6.8	13.1	11.5	11.5	3.3
	여성	2.7	1.4	5.7	1.4	-	2.8
사장님	남성	-	-	18.0	6.6	60.7	35.0
	여성	-	-	11.4	6.9	46.5	26.4
아주머니	남성	-	-	-	-	-	28.3
	여성	-	-	-	-	-	19.4
아줌마	남성	-	-	-	3.3	-	3.3
	여성	-	-	-	4.2	-	11.1

3) 호칭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대화 상대를 직접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화 상대에게 화제의 인물을 언급하거나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의 경우이고 “기무라씨는 내일 못 온대요”라고 하면 후자의 경우이다. 한국어에서는 보통 전자를 ‘호칭’(term of address), 후자를 ‘지칭’(term of reference)이라고 하는데 본고에서는 전자를 ‘직접호칭’, 후자를 ‘간접호칭’으로 칭하고자 한다(홍민표 2010).

아저씨 ⁴⁾	남성	4.9	6.8	-	-	12.1	-
	여성	2.7	1.4	10.0	-	25.4	-
삼촌	남성	-	-	11.5	-	-	-
	여성	-	-	5.7	-	-	-
언니	남성	-	5.1	-	18.0	-	-
	여성	-	19.2	-	22.2	-	-
이모	남성	-	-	-	4.9	-	11.7
	여성	-	-	-	9.7	-	8.3
기타	남성	6.6	10.9	6.6	11.4	9.1	10.1
	여성	8.8	2.7	7.2	1.5	1.4	5.6
합계(%)	남성	100	100	100	100	100	100
	여성	100	100	100	100	100	100

〈표2〉는 음식점이나 주점의 종업원을 20대, 30대, 60대로 나누어 평소에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데 대한 한국인의 결과를 남녀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20대와 30대 종업원에 대한 호칭은 남녀 구분 없이 ‘여기요’와 ‘저기요’라는 대체호칭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20대, 30대 여성 종업원을 ‘언니’로 부른다는 비율이 남녀 모두 20% 전후로 나타났는데 이 호칭은 〈표2〉에서 보는 것처럼 비즈니스 장면에서는 부르는 사람의 성별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 여성을 부를 때 의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20-30대의 젊은 여성 종업원을 남성이 ‘언니’로 부르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20대 종업원을 ‘학생’으로 부르거나 30대 남자 종업원을 ‘삼촌’으로 부른다는 응답도 일부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한국인만의 특이한 호칭이다. 한편 60대 남자 종업원⁶⁾의 경우, 남성은 ‘사장님(60.7%)’ ‘아저씨(12.1%)’, 여성은 ‘사장님(46.5%)’ ‘아저씨(25.4%)’ ‘여기요(21.1%)’ 등으로 부르고, 60대 여성 종업원의 경우, 남성은 ‘사장님(35.0%)’ ‘아주머니(28.3%)’, 여성은 ‘사장님(26.4%)’ ‘아주머니(19.4%)’ ‘여기요(20.8%)’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30대나 60대 여성 종업원을 ‘이모’로 부른다는 응답도 10% 전후로 나타났는데 ‘삼촌’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이와 같은 친족호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호칭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음식점이나 주점의 20대-30대 종업원은 ‘여기요’와 ‘저기요’라는 대체호칭이나 ‘언니’ ‘이모’라는 친족명칭, 또는 직업 명칭인 ‘학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고, 60대 종업원은 ‘사장님’ ‘아저씨’ ‘아주머니’ ‘여기요’ ‘이모’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오늘날 ‘아저씨’는 혈족이 아닌 남자 어른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지칭으로 쓰임이 확장되었지만 ‘아저씨’는 아버지의 남동생이나 누이의 남편, 어머니의 자매남편이나 남자형제를 일컬을 때에 여전히 쓸 수 있는 말이다.(국립국어원 2011)

5) 설아문(2016)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화자가 상대방의 주의를 끌려고 하지만 적당한 호칭어를 찾지 못 할 때 주로 두 가지 형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처소지칭형 호칭어로서 예를 들어 ‘저기요’, ‘여기요’ 등 있고 또 하나는 주의끌기형 호칭어로서 ‘실례지만’, ‘미안합니다만’, ‘죄송하지만’ 등 다양한 말이 있다고 한다. 한편 유신(2015)에서는 이와 같은 말을 ‘대체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본고에서도 일본어 「すみません」을 포함해서 한국어의 ‘저기요’ ‘잠깐만요’ 등과 같이 호칭어가 아니면서 호칭의 기능을 담당하는 짧은 말을 ‘대체호칭’으로 부르기로 한다.

6) 60대 종업원은 실제로 사장님일 가능성이 많지만 본고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1.1.2 일본인의 경우

〈표3〉 음식점이나 주점의 종업원에 대한 직접호칭(일본인의 경우)

호칭 \ 종업원		20대		30대		60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
すみません	남성	81.3	78.1	81.3	78.1	93.8	90.6
	여성	89.2	89.1	91.6	91.6	94.0	94.6
あの一	남성	-	-	-	-	-	-
	여성	4.2	4.2	4.8	5.4	3.6	3.6
おにいさん	남성	12.5	-	12.5	-	-	-
	여성	3.6	-	3.0	-	-	-
おにいちゃん	남성	3.1	-	3.1	-	-	-
	여성	2.4	-	-	-	-	-
おねえさん	남성	-	9.4	-	12.5	-	-
	여성	-	4.8	-	2.4	-	-
おねえちゃん	남성	-	9.4	-	6.3	-	-
	여성	-	1.2	-	-	-	-
기타	남성	3.1	3.1	3.1	3.1	6.2	9.4
	여성	0.6	0.6	0.6	0.6	2.4	1.8
합계(%)	남성	100	100	100	100	100	100
	여성	100	100	100	100	100	100

〈표3〉은 음식점이나 주점의 종업원을 20대, 30대, 60대로 나누어 평소에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한 일본인의 결과를 남녀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한국과 달리 부르는 사람이나 불리는 사람의 연령에 관계없이 「すみません」으로 부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すみません」이라는 호칭은 종업원의 연령이 본인보다 적은 20-30대보다는 본인보다 연령이 많은 60대 종업원에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보다 연령이 낮은 20-30대 종업원에게는 「すみません」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그밖에도 남성에게는 「おにいさん」, 여성에게는 「おねえさん」과 같은 친족호칭도 일부 사용한다는 점에서 60대 순위 종업원 호칭과 차이가 있다. 즉 비율은 높지 않지만 20-30대 여성종업원을 일본에서는 「おねえさん」, 한국에서는 ‘언니’로 부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대의 남자 종업원을 「おにいさん」에 해당하는 ‘형(님)’이나 ‘오빠’로 부르는 경우는 없고 대신에 〈표2〉에서 본 것처럼 ‘학생’이라는 직업 명칭을 일부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크게 보아서 한국의 대체호칭어 ‘여기요’ ‘저기요’와 일본어 사죄표현 「すみません」은 호칭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유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

7) 이와 같은 결과는 한일양국의 중년 남녀가 중학생, 대학생, 그리고 동년배인 중년남녀 등에게 어떻게 불리는지를 조사한 흥민표(2016)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다만 친족호칭인 「아저씨/아줌마(おじさん/おばさん)」에서 대체호칭어인 「여기요/저기요(すみません)」로 호칭이 바뀌는 연령대가 한국은 중학생과 대학생이 경계인데 비해서 일본은 대학생과 동년배가 경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1.2 첫 대면 상대의 직접호칭

4.1.2.1 한국인의 경우

〈표4〉 첫 대면 상대의 직접호칭(한국인의 경우)

호칭 상대		50대 남성인 경우	70대 남성 노인인 경우	호칭 상대		50대 여성인 경우	70대 여성 노인인 경우
여기요	남성	6.7	-	여기요	남성	4.9	-
	여성	7.0	5.5		여성	5.6	2.7
저기요	남성	8.3	-	저기요	남성	8.2	-
	여성	12.7	9.6		여성	13.9	9.6
잠깐만요	남성	13.3	8.1	잠깐만요	남성	14.5	6.5
	여성	19.7	11.9		여성	20.8	13.7
아저씨	남성	40.0	6.5	할머니	남성	-	33.9
	여성	50.7	13.7		여성	-	28.8
사장님	남성	26.7	-	할머니님	남성	-	41.9
	여성	-	-		여성	-	23.3
할아버지	남성	-	35.5	아주머니	남성	44.3	-
	여성	-	31.9		여성	34.7	13.7
할아버님	남성	-	33.9	아줌마	남성	9.8	-
	여성	-	21.9		여성	19.4	2.7
기타	남성	5.0	16.0	사모님	남성	11.5	4.8
	여성	9.9	5.0		여성	2.8	-
합계(%)	남성	100	100	기타	남성	6.8	12.9
	여성	100	100		여성	2.8	5.5
				합계(%)	남성	100	100
					여성	100	100

〈표4〉는 길에서 만난 처음 보는 사람이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간 경우,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나타낸 한국인의 호칭 실태이다. 이것을 보면 상대방이 50대 남성인 경우에는 ‘아저씨’와 ‘사장님’이, 70대 남성 노인인 경우에는 ‘할아버지(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50대 여성은 ‘아주머니’와 ‘아줌마’가, 70대 여성 노인은 ‘할머니(님)’가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의 종업원 호칭과 달리 ‘여기요’ ‘저기요’와 같은 대체호칭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동년배인 50대 남성은 ‘아저씨’, 여성은 ‘아주머니’ ‘아줌마’, 그리고 20세 정도 연상인 70대 노인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은 친족호칭으로 부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처음 보는 사람의 경우, 한국인은 손아래 사람은 주로 ‘여기요’ ‘저기요’와 같은 대체호칭어로 부르고 본인보다 연장자는 연령에 따라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친족호칭으로 부르지만 일본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すみません」으로 부른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50대의 남성을 직함명인 ‘사장님’으로 부른다는 비율도 26.7%로 나타났는데, 이는 ‘회사대표’를 의미하는 ‘사장’의 의미 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호칭이다⁸⁾.

8) 김광순(2015)에서는 세종말뭉치에서 ‘아줌마’를 검색한 결과 중에 1000개를 ‘N+아줌마’의 형태로 정리하여 “http://www.tagxedo.com”를 통해 단어구름을 만든 결과, ‘아줌마’는 ‘주인 아줌마’ ‘식당 아줌마’ ‘요쿠르트 아줌마’, ‘파출부 아줌마’의 ‘명사+아줌마’의 형태와 ‘일하다, 팔다, 늙다, 똥똥하다’ 등의 용언과 결합하여 ‘관형어+아줌마’의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9) 실제 교사가 아닌 사람을 ‘선생님’으로 호칭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호칭으로 볼 수 있다.

4.1.2.2 일본인의 경우

〈표5〉 첫 대면 상대의 직접호칭(일본인의 경우)

호칭 상대		50대 남성인 경우	70대 남성 노인인 경우	호칭 상대		50대 여성인 경우	70대 여성 노인인 경우
すみません	남성	71.9	67.7	すみません	남성	71.9	65.6
	여성	82.6	81.3		여성	82.7	81.0
あの一	남성	18.8	19.4	あの一	남성	18.8	18.8
	여성	15.0	15.1		여성	14.9	14.9
おじいさん	남성	-	3.2	おばあさん	남성	-	3.1
	여성	2.4	-		여성	-	-
おとうさん	남성	-	3.2	おばさん	남성	-	3.1
	여성	-	1.2		여성	-	-
기타	남성	9.4	6.5	おばちゃん	남성	-	3.1
	여성	-	2.4		여성	-	-
합계(%)	남성	100	100	기타	남성	9.4	6.3
	여성	100	100		여성	2.4	4.1
				합계(%)	남성	100	100
					여성	100	100

〈표5〉는 길에서 만난 처음 보는 사람이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간 경우, 그 사람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나타낸 일본인의 호칭 실태이다. 이것을 보면 친족호칭으로 부르는 한국인의 결과와는 달리 일본인들은 「すみません」으로 부른다는 응답이 남녀 모두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2〉의 종업원에 대한 호칭보다는 비율이 낮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すみません」과 함께 「あの一」라는 말도 20%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おとうさん」 등의 친족호칭도 일부 사용되고는 있으나 그 비율이 5% 이하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을 부르는 일본어 호칭은 연령에 관계없이 「すみません」이 가장 일반적인 호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1.3 친한 친구의 가족 호칭

4.1.3.1 친구 부모님에 대한 호칭

〈표6〉 친구 부모님 직접호칭의 한일 비교

한국인				일본인									
호칭	친구 아버지		호칭	친구 어머니		호칭	친구 아버지		호칭	친구 어머니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아버님	79.4	73.3	어머님	83.6	74.3	おとうさん	62.5	62.8	おかあさん	59.4	61.3		
친구이름+ 아버지	17.5	25.3	친구이름+어머님	14.8	24.3	おじさん	28.1	23.2	おばさん	28.1	23.9		
기타	3.2	1.3	기타	1.6	1.4	おじちゃん	-	4.9	おばちゃん	3.1	6.7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あの一	9.4	2.4	あの一	6.3	2.5		
								기타	6.7	기타	3.1	5.5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표6〉은 친한 친구 부모님에 대한 호칭 실태를 나타낸 한일 양국인의 결과인데 이것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은 ‘아버님’ ‘어머님’, 일본인은 「おとうさん」 「おかあさん」 과 같은 친족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다만 한국인은 ‘친구이름+아버님/어머님’도 20% 전후로 나타났지만 일본인은 이런 형식의 호칭은 전혀 없고 대신에 「おじさん/ちゃん」 「おばさん/ちゃん」 으로 부른다는 비율이 30% 전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친구 부모님을 「おじさん」 「おばさん」 으로 부른다는 것은 한국에서 친구 부모님을 ‘아저씨’ ‘아주머니’로 부른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호칭이라는 점에서 일본인 유사친족호칭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1.3.2 친구 순위 동기간에 대한 호칭

〈표7〉 친구 순위 동기간 직접호칭의 한일 비교

호칭	한국인				일본인						
	친구 형/오빠		호칭	친구 누나/언니		호칭	친구 형/오빠		호칭	친구 누나/언니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형/오빠	24.2	78.6	누나/언니	36.7	89.7	お兄さん	78.1	69.7	お姉さん	75.0	69.1
형님	57.1	-	누님	43.4	-	お兄ちゃん	-	7.9	お姉ちゃん	-	9.1
친구이름+형/오빠	14.6	14.7	친구이름+누나/언니	3.3	5.4	이름+さん	6.3	9.7	이름+さん	9.4	9.1
기타	4.1	6.7	친구이름+누님	10.0	-	이름+ちゃん	3.1	-	이름+ちゃん	6.3	4.2
-	-	-	기타	6.6	4.9	あの一	6.3	1.8	あの一	6.3	1.8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기타	6.2	10.9	기타	3.1	6.8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표7〉은 친구 순위 동기간(형/오빠, 누나/언니)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호칭 실태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우선 한국인의 경우, 순위 남성 동기간에 대해서 남성은 ‘형(24.2%)’ ‘형님(57.1%)’, 여성은 ‘오빠(78.6%)’가 가장 많고, 순위 여성 동기간에 대해서 남성은 ‘누나(36.7%)’ ‘누님(43.4%)’, 여성은 ‘언니(89.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이에 비해 일본인의 경우는 순위 남성 동기간은 남녀 모두 「おにいさん」, 여성 동기간은 남녀 모두 「おねえさん」 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¹¹⁾. 그리고 일본인의 호칭 중,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순위 동기간을 「이름+さん/ちゃん」 으로 부른다는 비율이 10% 전후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순위 동기간을 이름으로 부르는 호칭은 한국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 호칭이라는 점에서 일본인 유사친족 호칭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¹²⁾. 다만 한국도 현재와 같은 자녀수 감소현상이 더 진전이 되면 10대-20대

10) 〈표7〉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순위 동기간 호칭에서 남동생은 형이나 누나를 높여서 부르는 형님이나 누님이라는 호칭이 있지만 여동생은 오빠나 언니를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 없다. 이와 같은 호칭으로 볼 때 예로부터 남성은 상하관계, 여성은 친근감을 중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1)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한일 양국어의 순위동기간 호칭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는 순위 동기간을 부를 때 부르는 사람의 성(姓)과 불리는 사람의 성(姓)에 따라서 호칭이 4가지로 나뉘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부르는 사람의 성(姓)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남동생이 부르는 여동생이 부르는 순위의 남자 동기간은 「お兄さん」, 여자 순위 동기간은 「お姉さん」 으로 부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 일본어 「이름+さん」의 호칭법과 한국어 ‘이름+씨’는 유사하지만 특정 시기가 지난 후 ‘형’ ‘오빠’ ‘누나’ ‘언니’로 그 호칭 변경의 여지가 있는 한국어와 달리 일본어의 경우 특정 시기가 지나도 친족어를 호칭으로 사용

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처럼 형(오빠)이나 누나(언니)를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형제자매가 5-6명이던 과거와 달리 자녀수 감소현상으로 인해 형제자매 자체가 많지 않고 있어도 나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형이나 누나와 같이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호칭보다는 친근감 또는 대등함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서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언어사용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와 같이 부모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사용하기 보다는 최근에는 반말(친밀체)로 친근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호칭의 변화로 볼 때 가정에서의 가족관계도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최근에는 수평적인 관계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간접호칭

4.2.1 친구 가족에 대한 간접호칭

4.2.1.1 친구 조부모의 호칭

〈표8〉 친구 조부모에 대한 간접호칭의 한일 비교

호 칭	한국인					일본인					
	친구 할아버지		호 칭	친구 할머니		호 칭	친구 할아버지		호 칭	친구 할머니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할아버지	39.7	45.9	할머니	40.4	46.5	おじいさん	45.0	40.6	おばあさん	47.0	36.8
할아버님	60.3	54.1	할머님	59.6	53.4	おじいちゃん	55.0	59.4	おばあちゃん	53.0	63.2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표8〉은 친구에게 친구 조부모의 안부를 물어볼 때의 지칭, 즉 조부모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간접호칭의 실태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우선 한국인의 경우, 친구 할아버지는 남녀 모두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님’, 할머니는 남녀 모두 ‘할머니’ ‘할머님’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친구 할아버지는 남녀 모두 「おじいさん」 「おじいちゃん」, 할머니는 남녀 모두 「おばあさん」 「おばあちゃん」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인은 남녀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할아버님’ ‘할머님’의 비율이 높는데 비해 일본인은 남녀 모두 「おじいさん」 「おばあさん」 보다는 「おじいちゃん」 「おばあちゃん」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본어에도 ‘할아버님’ ‘할머님’에 해당하는 「おじいさま」 「おばあさま」라는 호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대의 중년층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おじいちゃん」 「おばあちゃん」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한일 양국인의 경어의식의 차이, 즉 연령에 의한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경어의식과 연령보다는 친소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인의 경어의식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4.2.1.2 친구 부모의 경우

〈표9〉 친구 부모에 대한 간접호칭의 한일 비교

한국인					일본인						
호칭	친구 아버지		호칭	친구 어머니		호칭	친구 아버지		호칭	친구 어머니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아버지	16.7	29.3	어머니	31.7	37.8	おとうさん	68.8	68.3	おかあさん	68.8	72.9
아버님	78.3	68.0	어머님	61.7	59.5	おじさん	31.3	23.4	おばさん	31.3	21.1
기타	-	2.7	기타	6.7	2.7	おじちゃん	-	4.8	おばちゃん	-	6.0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표9〉는 친구에게 친구 부모의 안부를 물어볼 때의 지칭, 즉 친구 부모에 대한 한일 양국인의 간접호칭의 실태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표8〉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한국인의 경우, 친구 아버지는 남녀 모두 ‘아버지’ 또는 ‘아버님’, 어머니는 남녀 모두 ‘어머니’ 또는 ‘어머님’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친구 아버지는 남녀 모두 「おとうさん」, 어머니는 남녀 모두 「おかあさん」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인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와 달리 「おとうちゃん」 「おかあちゃん」이라는 호칭은 전혀 없고 대신에 「おじさん/ちゃん」 「おばさん/ちゃん」으로 부른다는 비율이 30% 전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6〉의 친구 부모에 대한 직접 호칭에서도 확인된 것인데 〈표9〉의 간접 호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친구 아버지나 어머니를 직접호칭은 물론 간접호칭에서도 「おじさん/ちゃん」이나 「おばさん/ちゃん」으로 부르거나 지칭한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친구 부모 호칭이나 지칭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어 유사친족호칭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2.1.3 친구 순위 동기간¹³⁾의 경우

〈표10〉 친구 순위 동기간에 대한 간접호칭의 한일 비교

한국인					일본인						
호칭	친구 형/오빠		호칭	친구 누나/언니		호칭	친구 형/오빠		호칭	친구 누나/언니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형	38.3	-	누나	50.0	-	お兄さん	78.1	70.5	お姉さん	75.0	71.1
형님	53.3	-	누님	45.0	-	お兄ちゃん	6.3	19.3	お姉ちゃん	12.5	18.1
오빠	-	90.1	언니	-	89.1	이름+さん	3.1	3.0	이름+さん	6.3	2.4
기타	8.4	9.9	기타	5.0	10.9	이름+ちゃん	3.1	1.2	이름+ちゃん	3.1	3.6
-	-	-	-	-	-	기타	9.3	6.0	기타	-	4.8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표10〉은 친구에게 친구 순위 동기간의 안부를 물어볼 때의 지칭, 즉 친구 순위 동기간에 대한 간접호칭의 실태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우선 한국인의 경우, 친구 형/오빠에 대해서 남성은 ‘형(38.3%)’ 또는

13) 본고에서는 형과 아우라는 상하관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형제자매보다는 형제자매 사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를 통칭하는 동기간(同氣間)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주 13은 4.1.3.2(8쪽)의 동기간으로 옮겨주세요. 초출로요..)

‘형님(53.3%)’, 여성은 ‘오빠(90.1%)’ 로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 누나/언니에 대해서 남성은 ‘누나(50.0%)’ 또는 ‘누님(45.0%)’, 여성은 ‘언니(89.1%)’ 로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친구 형/오빠에 대해서 남성은 「お兄さん」 「お兄ちゃん」, 친구 누나/언니에 대해서는 「お姉さん」 「お姉ちゃん」 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일 양국 마찬가지로 <표7>의 본인의 순위 동기간을 직접 부를 때와 동일한 호칭으로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인의 지칭 중, 5% 전후로 비율은 낮지만 순위 동기간을 「이름+さん/ちゃん」 으로 지칭한다는 응답도 일부 있으나 이와 같은 호칭은 한국인에게에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⁴⁾.

4.2.2 선후배 배우자에 대한 간접호칭

<표11> 동성의 선후배 배우자에 대한 간접호칭의 한일 비교

호칭	한국인				호칭	일본인			
	동성이고 선배인 지인의 배우자		동성이고 후배인 지인의 배우자			동성이고 선배인 지인의 배우자		동성이고 후배인 지인의 배우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형수님	65.5	-	-	-	이름+さん	29.6	23.9	23.3	17.4
제수씨	-	-	41.2	-	이름+ちゃん	-	-	6.7	9.7
○○엄마/아빠	5.5	12.3	7.8	18.6	이름+くん	-	-	13.3	7.2
○○어머니/아버지	3.6	15.9	-	-	이름만	3.7	-	6.7	-
부인	3.6	-	2.0	-	おくさん	44.4	-	46.6	-
와이프	-	-	9.8	-	おくさま	22.2	-	-	-
아저씨	-	23.8	-	4.3	だんなさん	-	22.2	-	51.5
성명+씨	-	-	21.6	38.5	ご主人	-	47.9	-	6.7
직함명	-	12.6	7.9	1.4	별명/애칭	-	6.0	3.3	7.5
사장님	-	10.9	-	-	합계(%)	100	100	100	100
사모님	16.4	-	-	-					
남편	-	6.3	-	10.9					
신랑	-	-	-	12.9					
바깥양반	-	7.8	-	2.9					
기타	5.4	10.4	9.7	10.5					
합계(%)	100	100	100	100					

<표11>은 동성인 선후배 배우자의 안부를 물어볼 때의 지칭, 즉 동성인 선후배 배우자에 대한 간접호칭의 실태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우선 한국인의 경우, 동성인 선배의 배우자에 대해서 남성은 ‘형수님(65.5%)’, 여성은 ‘아저씨(23.8%)’ 로 지칭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동성인 후배의 배우자에 대해서 남

14) 왕한석 외(2005)의 머리말에서는 한국어 호칭어가 다른 타 언어들과 다른 첫 번째 특징을 이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 각각을 구별하는 개별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칭어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다. 곧 이름은 단지 서류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름을 호칭어로 사용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함에 따라 이를 호칭어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타 언어사회와 비교하여 당연히 호칭어가 층층이(성, 직함, 지명, 친족명, 외래어 호칭 등 조합 사용) 복잡해진다.”

성은 ‘제수씨(41.2%)¹⁵⁾’ 또는 ‘성명+씨(21.6%)’, 여성은 ‘성명+씨(38.5%)’ 로 지칭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인의 경우는 동성인 선배의 배우자에 대해서 남성은 「이름+さん(29.6%)」 「おくさん(44.4%)」 「おくさま(22.2%)」, 여성은 「ご主人(47.9%)」 「이름+さん(23.9%)」 「だんなさん(22.2%)」 으로 지칭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동성인 후배의 배우자에 대해서 남성은 「おくさん(46.6%)」 「이름+さん(23.3%)」, 여성은 「이름+さん(17.4%)」 「だんなさん(51.5%)」 「ご主人(7.7%)」 으로 지칭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이름+씨(さん)」 라는 호칭이나 지칭은 한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일본에서는 선배나 후배의 배우자에게 모두 사용되는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후배의 배우자에게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연장자에게 이름을 이용한 호칭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비율은 높지 않지만 ‘〇〇엄마/아빠’와 같이 자녀의 이름에 기대어 부르는 종자명 호칭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호칭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인 남성은 동성인 선배나 후배의 배우자를 ‘형수님’ 이나 ‘제수씨’ 와 같은 친족호칭으로 지칭하는데 비해서 일본인은 남성은 「おくさん」 「おくさま」, 여성은 「だんなさん」 「ご主人」 등의 전형적인 배우자 간접호칭으로 지칭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수님’ 이나 ‘제수씨’는 간접호칭뿐만 아니라 직접호칭으로도 사용되는데 비해 일본어의 「おくさん」 「おくさま」 「だんなさん」 「ご主人」 등은 간접호칭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5. 마무리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50세 전후의 중년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친족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지칭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대조 고찰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종업원을 부르거나 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부를 때 한국에서는 ‘여기요’ ‘저기요’와 같은 대체호칭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すみません」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에서는 ‘언니’ ‘아주머니’ ‘아저씨’ 같은 친족호칭이나 ‘사장님’과 같은 직함명도 일부 사용되나 일본에서는 「すみません」 이외에 다른 호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길거리 등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경우, 한국인은 손아래 사람을 주로 ‘여기요’ ‘저기요’와 같은 대체호칭어로 부르고 본인보다 연장자는 연령에 따라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친족호칭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주로 「すみません」으로 부른다는 차이가 있다.

(3) 친구의 조부모, 부모, 손위 동기간을 직접 부르거나 지칭할 때 한일 양국 마찬가지로 본인의 조부모, 부모, 손위 동기간과 동일한 호칭으로 주로 부른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4) 「이름+씨(さん)」라는 호칭은 일본에서는 선배나 후배의 배우자에게 다 사용되는데 비해서 한국에서

15) 이와 같은 결과는 한일양국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평소 주위의 지인들에게 어떻게 불리는지를 조사한 홍민표(2017)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즉 한국인 중년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친한 친구로부터 남성은 ‘이름+씨(50.0%)’, ‘자녀이름+아빠(44.6%)’, 여성은 ‘제수씨(67.9%)’, ‘자녀이름+엄마(16.1%)’로 주로 불리고, 배우자의 후배와 같은 연하자로부터 남성은 ‘자녀이름+아빠/아버님(80.6%)’, 여성은 ‘형수님(82.1%)’으로 주로 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인은 배우자의 친한 친구, 선배, 후배로부터 남성은 주로 「이름/姓+さん」, 여성은 「이름/姓+さん」 또는 「おくさん」으로 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후배의 배우자에게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선배나 후배의 배우자의 안부를 물을 때, 한국인 남성은 ‘형수님’이나 ‘제수씨’ 등의 친족호칭, 여성은 ‘아저씨’ ‘성명+씨’ 등으로 지칭하는데 비해서 일본인 남성은 「おくさん」 「おくさま」, 여성은 「だんなさん」 「ご主人」 등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11) 『표준언어예절』 국립국어원
- 김광순(2015) 「친족어의 호칭어로서 확장 사용 양상」 『한국어 의미학』 48 한국어 의미학회 pp.175-201
- 김희숙(2005) 「호칭어의 역설: 2차 한국사회 내 늘어나는 몇몇 친족어사용」 『한국사회와 호칭어』 역락 pp.149-190
- 박정운(2005) 「한국어 호칭어 체계」 『한국사회와 호칭어』 역락 pp.75-96
- 설아문(2016) 『사회적 상황에서의 한 중 사회 호칭어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0-42
- 왕한석 외(2005) 『한국사회와 호칭어』 역락 pp.1-6
- 유신(2015) 『한·중·일 호칭 사용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pp.1-20
- 홍민표(2010) 『언어행동문화의 한일비교』 한국문화사 pp.239-257
- _____ (2016) 「사회적 인간관계와 호칭사용에 대한 한일 대조연구」 『비교일본학』 36 한양대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pp.357-372
- _____ (2017) 「지인 호칭에 대한 한일대조 고찰」 『외국학연구』 40 중앙대 외국학연구소 pp.103-122
- 요코야마(横山由香, 2012) 『日韓大学生の対人関係、対人行動、対人意識の比較-フェイスの視点から-』 東北大学博士論文 pp.59-64

〈 要 旨 〉

疑似親族呼称の使用実態に対する韓日対照研究

本稿は、日韓両国の50歳前後の中年男女を対象に疑似親族呼称の使用実態に対する調査結果を社会言語学的な観点から対照考察をしたもので、その主な内容を要約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1) 飲食店や酒店などで従業員を呼んだり、街で初対面の人を呼ぶ時、韓国では「ヨギョ」「ジョギョ」といった代替呼称語が主に使用されているのに対し、日本では「すみません」という言葉を最も多く使用することが分かった。

(2) 街頭などで初対面の人を呼ぶ場合、韓国人は年下の者は主に「ヨギョ」「ジョギョ」といった代替呼称語で呼ぶが、本人より年上の人には性や年齢によって「アジョシ(おじさん)」「アジュモニ(おばさん)」「ハラボジ(おじいさん)」「ハルモニ(おばあさん)」のような親族呼称で呼んでいることがわかった。しかし、日本人は年齢に関係なく「すみません」と呼ぶ人が多い。

(3) 友人の祖父母、両親、兄や姉を呼んだり言及する時、韓日両国同様に本人の祖父母、両親、兄や姉と同じ呼称を使用する人が最も多い点で一致している。

(4) 先輩や後輩の配偶者の安否を聞く時、韓国人男性は「ヒョンスニム」「ジェスシ」のような親族呼称、女性は「アジョシ」「姓名+シ(さん)」などで言及する人が最も多い。しかし、日本人の男性は「おくさん」、女性は「だんなさん」「ご主人」などで言及する人が多いことが分かった。

論文分野: 社会言語学

キーワード: 社会言語学、対照分析、疑似親族呼称、韓国人、日本人

■ 흥민표(洪珉杓)

계명대학교 교수

hmp@kmu.ac.kr

■ 投稿日 :	2019년	3월	31일
■ 審査開始 :	2019년	4월	13일
■ 審査完了 :	2019년	5월	9일
■ 掲載確定 :	2019년	5월	10일